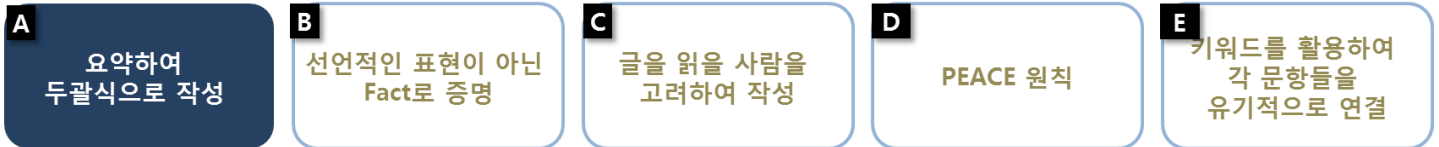


약점 없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ABCDE

수 백, 수 천 장의 자기소개서를 짧은 시간 내에 읽어내야 하는 교수님들은 모든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대 수험생은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담백하게 써야 하며, 명확하고 차별화된 의미 전달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바바라 민토의 'Logical Thinking'에서 제시한 방법과 이에 덧붙인 저희만의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BCDE! 즉, 5가지가 있습니다.



E. 키워드를 활용하여 각 문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키워드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자신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2-3가지의 스펙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장배경

나눔이 있는 의사의 꿈을 꾸기 까지
여느 아이들처럼 공부하기 싫어했던 말괄량이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공부해서 남 쥐라'였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저는 학창시절에 학업이 부진했던 친구들의 선생님 노릇을 도맡아 하였고 집안사정으로 급식을 먹지 못하는 친구들과 제 급식을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육을 무상 제공하는 '오스쿨 (xxxx 교회)'이라는 곳에서 두어 번 영어 보조교사로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즐거움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변사람들의 조언에 문과를 선택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니 흥미를 갖지 못했고 주변의 조언이나 훗날 선택할 수 있는 직업과 같은 외적인 측면들 보다는 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공부해서 남 주자!'는 어릴 적 꿈을 떠올리며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무슨 공부를 해야 남 주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한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지만 내 평생의 꿈을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꾸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오스쿨에서 봉사할 때였습니다. 그 때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그 때 까지도 확고한 꿈이 없었던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 선생님 나중에 뭐 할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여쭙어보세요." 그 때 그 설렘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제 미래를 보았고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 봉사' 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팡 하고 새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처럼 엄청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저런 조건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찾아 낸 꿈은 아니었지만, 그 한 단어가 제 가슴속 어딘가에 새겨져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단 한 순간도 다른 꿈을 생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던 제가 꿈을 가지게 된 뒤에는 10 년 후의 저를 상상하며 전엔 알지 못했던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환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치료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돌보아 주는 마음,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분 매초 다짐해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언제나 베푸는 의사가 되어야지!' 하고 말입니다.

졸업 후 활동계획

(중략)

지금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 중 ○○이라는 몸이 많이 불편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와 함께 간이 좋지 않아 몇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합병증에 신장 기능까지 나빠져 얼마 전에는 신장을 이식 받는 큰 수술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이의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어린이날 분홍색 구두를 선물 받았으며 수줍게 사랑하는 ○○이를 보면 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으면서도 곳곳하게 견뎌내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린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소아과 전문의가 되고 싶습니다. 치료하고 돌봐주는 것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종종 괴롭히는 아토피나 선천성 유전질환 등의 증상 완화에 힘쓰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에도 힘쓰고 싶습니다. 이러한 임상과 연구에의 목표에 제가 전공한 생물학과 해부학적 바탕과 연구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또한 '배워서 남 주기' 위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틈틈이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기관에 속하는 것 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맞는 몇몇의 의사 분들과 함께 소규모 봉사단체를 만들어 국외나 국내에서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의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형광 표시한 ' 배워서 남 주기' 라는 키워드를 자기소개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워서 남 주기'라는 키워드가 그리 거창하지 않고, 이것을 가슴에 품게 된 계기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읽은 교수님이

'이 학생은 [배워서 남 주는] 의사가 될 학생'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데 성공하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면접을 마무리 한 후 메이저 의전 중 한 곳에 당당히 입성하였습니다.